

독자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



작가들이 여행지에서 그린 스케치 작품과 함께 손 편지를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보낸다. 왼쪽부터 조정대, 오광섭, 정상섭, 박구환, 박종석, 문정호, 김해성, 주홍, 장현우, 문명호, 한희원 작가.

지역 작가 12인 기획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 매주 연재

여행지 단상 담은 스케치·손편지로 아날로그 감성 전할 것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는 일이 부쩍 즐겁다. 펜을 들고 편지지에 이련저런 이야기와 소식, 단상들을 적어 보내던 기억들은 이제는 옛말이 됐다. 이메일과 SNS로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스마트폰이나 문자메시지로 소식을 묻는다. 빠르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정성을 담아 써내려간 손 편지가 그림이다.

지역의 대표 중견 작가들이 독자들에게 여행지에서 느낀 단상들을 그린 스케치 작품과 함께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손 편지를 띄운다.

광주일보가 창사 63주년을 맞아 지역 작가 12명과 함께 기획한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아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참여 작가들은 김해성·문명호·문정호·박구환·박종석·오광섭·장현우·정상섭·정성준·조정대·주홍·한희원 작가 등 12명이다.

김해성 작가는 "언젠가부터 손으로 직접 적은 글로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행지에서 작가들이 창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낀 것들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행과 글, 그림이 어우러진 작은 엽서와도 같은 '광주로 띄우는 그림편지'는 지난 20일 창사 특집호에 게재된 김해성 작가의 실크로드 편 '별'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담양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장현우 화가가 편지를 보낼 계획이다.

작품에 사람들의 감성을 담아내고, 새로운 문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전시하는 메시지는 독자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한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가들의 작품이 아닌 여행지에서 그린 스케치 작품은 소박하면서도 뜻

한 느낌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북경 798예술특구에서 활동하는 있는 정성준 작가는 중국 미술의 소식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담아 독자들에게 편지를 쓸 예정이다.

한희원 작가는 "너무 속도가 빠르고,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독자들에게 작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작가들이 편안하게 쓴 글과 '휴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여행지의 스케치를 통해 독자와 시민들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현우 작가는 "여행과 스케치, 글이 어우러진 엽서를 여행지에서 문득 생각나는 그리운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정과 사랑을 담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창의적인 시선과 삶이 묻어나 일반 독자들에게 친숙한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구환 작가는 "똑같은 장소에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작가들의 창조적인 해석을 곁들여 전하고 싶다"라며 "작가의 시각을 통해 만들어내고, 언어로 풀어내는 일이 흥미롭다"고 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연극 '아버지' 프랑스 간다

기메박물관 2015년 특별 초청... 6월 19일 공연

1889년 에밀 기메가 설립한 기메동양박물관은 아시아 지역 고미술·고고학 관련 유물과 장서 등 10만여 점과 한국 관련 유물 1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이다.

연극인 박윤모(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의 모노드라마 '아버지'가 기메박물관에서 열리는 아시아페스티벌(4.15~8.31)에 공식 초청 받았다. '아버지'는 오는 6월19일 300석 규모의 박물관 오라토리움에서 프랑스 관객들을 만난다. 한국 연극인이 이 페스티벌에 참가는 건 처음이다. 이어 6월 24일에는 벨기에 한국문화원에서 공연을 갖을 예정이다.

'2000년 역사의 아시아 연극, 노(能, 일본 고유의 가면극)에서 마타하리(Mata Hari)를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 페스티벌에서는 인도네시아, 그림자극, 티벳 오페라, 인도 연극, 일본 가면극 등이 공연되며 연극 의상 전시 등도 함께 열린다.

소설가 한승원이 희곡을 쓴 '아버지'는 고희연이 열리는 연희장에서 주연공 김우현이 11남매를 키우며 겪은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 전라도 사투리와 남도 특유의 해학으로 버무려 눈물과 웃음을 자아내며 1998년 초연 후 현재까지 모두 207회 공연됐다.

'아버지'는 6·25전쟁을 겪은 한국의 전통적인 아버지를 통해 파란의 가족사를 눈물과 해학적으로 풀어낸 한국인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초청작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남도의 사투리 대사가 프랑스어로 잘 번역돼 있고, 연극과 국악이 절묘

하게 어우러지는 극의 구성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12년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던 '아버지' 공연이 인연이 돼 성사됐다. 당시 프랑스어 번역을 맡았던 프랑스 극작가 에르베 페조디에 번역가 한유미씨 부부와 인연이 이어져왔고 두 사람은 기메박물관의 한국 참가작 소개를 요청받고 지난 2월 광주를 방문, 참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페조디씨는 "당시 번역 작업을 하고 작품을 직접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스토리와 풍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며 "판소리의 정서와 희로애락은 물론이고,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국악 공연이 곁들여진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페조디에 부부가 주최하는 한국소리 페스티벌(K-Vox)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21일 파리 테아트르 데 라 콘서트에도 참여한다. K-Vox 페스티벌은 '우리 소리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판소리 공연과 연극 공연, 문학작품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유럽에서 선보이고 있다.

박씨는 "2년 전 파리 공연에 이어 국립 기메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 작품을 공연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지역 예술인과 좋은 작품들이 유럽에 소개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의 거리 '탱고의 거리'

오늘 '나비야 궁둥가자' 이벤트

예술의 거리가 활기가 넘치는 거리로 바뀌고 있다.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은 24일 오후 2~7시 예술의 거리에서 광주문화예술단지 '나비야 궁둥가자' 다섯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선배 예술인들의 창작 열정을 상징하는 '정열의 탱고'다.

탱고퍼포먼스와 인물재현퍼포먼스, 기타·바이올린·색소폰 기악연주, 팝·재즈 보컬, 탱고·팝핀·아이돌 댄스 등 27개 공연이 거리마당에서 열린다.

또 전통생활문화체험, 도자기 만들기, 한지뜨기 등 27개 체험 프로그램과 9개의 아트스점들이 함께 문을 연다.

특히 '만나보고 싶었어요 김덕령·허백련·정윤성 인물재현퍼포먼스'와 더불어 탱고퍼포먼스가 정열의 4월을 표현하고, 탱고·팝핀·아이돌 댄스 무대가 재즈·팝송 보컬, 통기타·바이올린·색소폰 연주와 함께 예술잔치의 공연을 장식한다. 문의 062-223-013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글 추상의 조형성과 한국성 재해석

미래갤러리 내달까지 운병화전

미래갤러리(광주 북구 우산수영장 내)는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운병화 작가를 초대해 2015 신춘기획초대전을 연다.

'한글 추상의 조형성과 한국성 재해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운 작가는 모두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초고속 디지털 시대 속에 사라져가는 한국적 미감과 감성, 한국성을 기반으로 세로움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과 조형세계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글 추상의 재해석을 화폭에

담으면서 특유의 미학적 요소를 현대적이고 조형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티브는 한글 추상의 조형성과 현대성의 재해석을 통한 한국성의 복원과 가치의 조명이다. 특히 작가는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의 한글 이미지 속에 드러나는 우리 문화를 도상학적 이미지로 담아내 현대성에 접근시키면서 글로벌적 인식의 확대를 꾀하려고 노력했다.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한 운 작가는 서울, 일본, 중국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사)현대미술에 뿌리 올해의 작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문의 062-267-88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한국무용	창작무용	독무	초등부
◇ 심사위원	김미숙 (조선대 교수)	박선옥 (광주여대 교수)	◇ 창작무용 독무 초등부
◇ 전통무용 독무 초등부	▲ 금상	1 조은별(삼일중1)	◇ 창작무용 독무 초등부
▲ 금상	1 이예림(나주초3)	◇ 창작무용 독무 초등부	▲ 금상
1 최은별(삼일중1)	◇ 창작무용 독무 초등부	5.6학년	▲ 금상
◇ 전통무용 독무 초등부	▲ 최고상	1 유주리(광주수피아여고2)	1 장다영(광주중앙여고3)
▲ 최고상	1 송운아(유촌초5)		
1 유주리(광주수피아여고2)	▲ 은상		
	1 정다영(광주산정초6)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 예술제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인, 전 동종대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중앙초교, 구.한미소방서, 동부소방서